

대인불안 집단의 자기관련적 정보 회상

김 남 재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인불안 집단의 자기관련적 정보처리의 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2개의 실험으로 구성되었다. 실험 1에서는 대인불안 집단의 지속적인 자기관련적 정보처리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실험 2에서는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인불안 집단의 자기관련적 정보처리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제시된 단어들을 사회적 위협 단어들과 비위협 단어들로 나누었으며, 실험 과제는 변형된 처리의 깊이 파라다임을 활용한 의미적, 사적 자기관련적 및 공적 자기관련적 과제이었다. 실험 1에서 대인불안 집단은 다른 처리 조건에 비해서 사적 자기관련적 조건에서 단어들을 가장 많이 회상하였다. 실험 2에서 대인불안 집단은 다른 처리 조건에 비해 공적 자기관련적 처리 조건에서 단어들을 가장 많이 회상하였다. 예언과는 달리, 사회적-평가적 상황에서 대인불안 집단이 공적 자기관련적 처리를 한 사회적 위협 단어들을 더 많이 회상하지 않았다.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를 비교하여 대인불안 집단의 자기관련적 정보처리의 특성에 대한 시사점,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대인불안(social anxiety)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로서, 개인의 사회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준다.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대인불안은 사람이 사회적 존재란 면에서 더욱 고통스러우며, 보다 심각한 다른 정신병리를 유발하기 쉽다(Curran, 1977).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확한 통계치가 없으나, 미국의 경우 성인의 15~20% 정도가 대인불안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Pilkonis, Feldman, Himmelhoch, & Cornes, 1980).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불안은 근년까지도 심리학자들의 관심을 비교적 적게 받은 주제이다.

근래에 대인불안의 원인과 유지에서 인지적 의존성을 강조하는 이론적 모형이 많이 있었다. 자기평가 모형(Clark & Arkowitz, 1975), 자기제시 모형(Schlenker & Leary, 1982) 및 인지적 모형(Beck & Emery, 1985)은 모두 대인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인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대인불안 집단의 인지적 특성의 하나는 공적 자기 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공적 자기 의식은 대인불안과 정

적으로 상관되었다(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Hope & Heimberg, 1988; Johnson & Glass, 1989; Monfries & Kafer, 1994). 대인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또 다른 인지적 특성은 자기제시 기대(self-presentational expectancy)가 낮다는 것이다(Leary & Kowalski, 1995; Schlenker & Leary, 1982). 선행 연구들에서 대인불안 집단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호의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 낮았다(Alden, Bieling & Wallace, 1994; Doerfler & Aron, 1995; Leary, Kowalski, & Campbell, 1988; Maddux, Norton, & Leary, 1988; Wallace & Alden, 1995). 선행연구 결과들을 볼 때, 대인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공적 자기의식을 많이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다. 대인불안 집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정보처리적 특성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Beck의 인지적 모형에서 강조되었다(Beck & Emery, 1985). Beck의 인지적 모형에 따르면, 불안한 사람들은 위협 단서에 과민하다는 면에서 역기능적인 도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인불안 집단은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들의 부정적 평가와 같은 사회적 위협 단서의 처리를 촉진하는 정보처리적 특성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된다.

Hope, Rapee, Heimberg, 및 Dombeck(1990)는 Beck의 이런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를 하였다. Hope 등은 Stroop 색채 명명 과제를 활용하여, 임상적 대인 공포 집단이 사회적 위협 단서의 정보처리를 촉진하는 자기도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대인공포 집단에서는 사회적 위협 단어에 대한 색채 명명 지연시간이 통제 단어에 비해 더 길었으나, 신체적 위협 단어에 대한 색채 명명 지연시간은 통제 단어와 차이가 없었다. 색채 명명 지연시간이 길어진 것은 취약성 영역에 관계된 단서의 처리를 촉진하는 도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Hope 등의 연구 결과는 대인불안 집단이 사회적 위협 단서의 정보처리를 촉진하는 자기도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인불안 집단의 정보처리적 특성에 대한 다른 유형의 연구에서, Smith, Ingram, 및 Brehm(1983)은 처

리의 깊이 파라다임(depth of processing paradigm)을 활용하여, 대인불안 집단의 인지적 과잉(cognitive excess)과 인지적 결손(cognitive deficit)을 알아보았다. 사회적-평가적 위협을 받는 스트레스 조건과 스트레스 없는 조건에서 피험자들은 제시된 단어들에 대해 구조적, 의미적, 사적 자기관련적, 및 공적 자기관련적 과제로 평정한 후에, 우연회상 과제를 하였다. 연구 결과, 대인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 조건에서 공적 자기관련적 과제로 인해 처리된 단어들을 더 많이 회상하는 인지적 과잉을 보였으나, 인지적 결손을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에, 이들은 사적 자기관련적 과제에서는 인지적 과잉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 연구 결과는 대인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인불안 집단이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 조건에서 공적 자기관련적 과제로 수행한 단어들을 가장 많이 회상한 Smith 등(1983)의 연구 결과는 대인불안 집단이 타인들의 평가에 주의가 선회되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된다. 사적 자기관련 과제에서 인지적 과잉을 보여주지 않은 결과는 대인불안 집단이 사적 자기에는 주의를 특별히 많이 기울이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Smith 등의 연구 결과는 대인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공적 자기의식을 많이 하지만, 사적 자기의식을 더 많이 하지는 않는다는 다른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Hope & Heimberg, 1988; Monfries & Kafer, 1994).

Beck의 인지적 모형은 대인불안 집단은 취약성 도식에 의해 사회적 위협 단서에 과민한 정보처리적 특성을 보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Beck & Emery, 1985). 그런데 Beck가 제안한 대인불안에 대한 인지적 모형을 직접 검증한 연구는 Hope 등(1990)의 변형된 Stroop 과제를 사용한 연구이외에는 발견하기 어렵다. Smith 등(1983)이 관련된 연구를 하였으나, 그들의 연구는 대인불안 집단이 사회적 위협 단서에 과민한 정보처리를 하는가를 검증하지는 않았다.

대인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공적 자기의식을 많이 하므로(Fenigstein, 1975; Hope & Heimberg, 1988),

자기관련 정보처리를 사적 자기관련적 처리(내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와 공적 자기관련적 처리(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로 나눈다면, 대인불안 집단의 정보처리적 특성은 특히 공적 자기관련적 처리과정에서 잘 나타날 것이다. 즉 대인불안 집단의 타인의 부정적 평가와 같은 사회적 위협 단서에 과민한 정보처리적 특성은 공적 자기관련적 처리과정에서 두드러질 것이라고 보아진다.

대인불안 집단의 이러한 정보처리적 특성을 잘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Hope 등(1990)이 사용한 Stroop 과제보다는 처리의 깊이 파라다임을 응용한 방법일 것이다. 이 연구방법을 사용하면 정보처리 과정에서 대인불안 집단이 공적 자기의식을 많이 한다는 특성이 잘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대인불안 집단은 공적 자기의식을 많이 하므로, 대인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자기와 관련된 정보처리적 특성은 공적 자기관련적 처리과정에서 잘 드러날 것이다.

Smith 등(1983)의 연구에서 처리의 깊이 파라다임을 응용하여 자기관련적 처리과정을 사적 자기관련성 및 공적 자기관련성 정향과제로 구분한 것은 대인불안 집단의 정보처리적 특성을 알아보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Smith 등의 연구에서는 제시된 단어들의 내용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인불안 집단의 사회적 위협 단서에 취약한 정보처리를 하는지를 직접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적응적 정서를 가진 사람들의 자기도식의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기도식에 관련된 내용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Ingram, Kendall, Smith, Donnell & Ronan, 1987).

대인불안 집단의 자기도식의 내용을 좀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피험자들에게 제시되는 재료를 대인불안 집단의 도식에 관련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인불안 집단은 타인들의 부정적 평가를 기대하며(Leary & Kowalski, 1995; Schlenker & Leary, 1982), 부정적 평가와 같은 사회적 위협 정보에 과민한 자기도식을 가진 것으로 가정된다(Beck & Emery, 1985). 대인불안 집단이 그러한 자기도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려면, 제시되

는 재료를 사회적 위협 재료와 중성적(또는 긍정적) 내용의 재료로 구분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Smith 등(1983)의 연구에서 대인불안 집단은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적 자기관련적 처리를 한 단어들을 가장 많이 회상하는 인지적 과잉을 보였으나,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인지적 과잉을 보여 주지 않았다. 대인불안 집단이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공적 자기관련적 과제로 수행한 단어들을 더 많이 회상하지 않은 결과는 제시되는 단어들의 내용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대인불안 집단이 공적 자기관련적 조건에서 긍정적 내용의 단어들을 더 적게 회상하고, 부정적 평가 내용의 단어들을 더 많이 회상한다면, 단어 내용을 구분하지 않는 연구에서는 이런 차이가 반영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제시되는 단어들의 내용을 부정적 평가 내용과 긍정적 내용의 단어들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Smith 등(1983)의 연구를 보완하여, 제시되는 재료를 사회적 위협 재료와 비위협 재료로 구분할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위협 재료로는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성격특성 기술 단어가 포함된다.

본 연구는 대인불안 집단이 자기관련적 정보처리과정에서 타인들의 부정적 평가와 같은 사회적 위협 단서에 촉진적인 정보처리를 하는가를 검증하려는 것이다. 즉, 대인불안 집단이 사적 자기관련성 조건과 공적 자기관련성 조건에서 사회적 위협 단어들과 비위협(중성적 또는 긍정적) 단어들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정보처리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Smith 등(1983)과 Nasby(1989)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자기관련성 평정 과제를 사적 자기관련성 평가 과제와 공적 자기관련성 평가 과제로 구분할 것이다. 자기도식 모형에 의하면, 대인불안 집단은 사회적 위협 단어들을 선택적으로 처리할 것이며, 이러한 정보처리적 특성은 공적 자기관련적 처리과정에서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본 연구는 2개의 실험으로 구성되었다. 실험 1은 대인불안 집단의 지속적인 정보처리적 특성을 알아보

려는 것이다. 실험 1에서는 대인불안 집단이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적 자기관련적 처리를 한 단어들의 회상에서 사회적 위협 내용의 단어들을 더 많이 회상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대인불안 집단이 부정적 평가와 같은 사회적 위협 단서에 취약한 자기도식이 스트레스 없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보처리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실험 2는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 비해서,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대인불안 집단의 정보처리적 특성이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불안에 대한 개인-상황 상호작용 모형(Endler & Magnusson, 1976; Kendall, 1978)을 원용해 볼 때, 대인불안 집단의 특성은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 조건에서 특히 잘 나타날 것이라고 보아진다. 실험 1의 결과와 실험 2의 결과를 비교하면, 대인불안 집단의 자기관련적 정보처리의 특성이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사회적-스트레스 상황에서 활성화될 때에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실험 1

실험 1은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대인불안 집단의 지속적인 정보처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대인불안 집단의 사회적 위협 단서에 취약한 자기도식이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정보처리에 영향을 준다면, 대인불안 집단은 공적 자기관련적 조건에서 사회적 위협 단어들을 선택적으로 처리하여 가장 많이 회상할 것이라고 예언된다. 반면에 대인불안 집단의 사회적 위협 단서에 취약한 자기도식이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만 활성화되고, 비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대인불안 집단은 공적 자기관련적 조건에서 사회적 위협 단어들을 더 많이 회상하지 않을 것이다.

방 법

피험자

서울 소재 여자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과목을 수강하는 130여 명의 여자대학생에게 대인관계 불안 척도(IAS)를 실시하여, 상위 25%(IAS 점수 50 이상)에 속한 학생들 중에서 표집된 대인불안이 높은 집단(대인불안 집단) 18명, 하위 25%(IAS 점수 37 이하)에 속한 학생들 중에서 표집된 대인불안이 낮은 집단(비대인불안 집단) 18명으로 총 36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대인불안 집단의 IAS 점수의 평균은 56.94(표준편차 5.58)이었으며, 비대인불안 집단의 IAS 점수의 평균은 30.72(표준편차 3.25)이었다.

측정도구

대인관계 불안 척도

성향적 대인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Leary(1982)의 대인관계 불안 척도(Interaction Anxiousness Scale; IAS)를 김남재(1995)가 번안한 IAS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IAS는 1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점 척도(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완벽하게 나타낸다) 상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상태-특질 불안 검사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Spielberger, Gorsuch, 및 Lushene(1970)의 상태-특질 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표준화한 검사에서 상태불안 척도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상태불안 척도 한국판은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 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대단히 그렇다) 상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자극재료

자극재료로 사회적 위협 단어 18개와 비위험 단어

18개가 사용되었다. 사회적 위협 단어들은 김영채(1984)와 한덕용(1992)이 조사한 성격특성 기술 단어 들 중에서 대인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자주 보이는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40여 개 뽑았다. 이 단어들을 여자대학생 61명에게 “대인 관계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단어가 당신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싫거나 위협적인가 하는 정도”를 평정시켜서 위협성이 높게 나온 18개의 단어들을 선정하였다(예: 과민한, 긴장된, 소극적인, 무기력한). 비위협 단어들은 김영채(1984)와 한덕용(1992)의 조사를 토대로 하여 사회적 위협 단어들과 각각 음절수, 사용빈도 및 심상가를 짝맞추어서(matched) 18개의 단어들을 선정하였다(예: 관대한, 강건한, 신뢰로운, 기품있는). 의미적 과제에서 사용되는 동의어는 국어대사전에서 찾았다. 36개의 단어들을 가지고 상쇄된(counter-balanced) 순서로 3벌의 단어 목록을 만들었다. 3벌의 목록을 통틀어서 각 단어는 3가지 단서 질문(cue question) - 의미적, 사적 자기관련적, 및 공적 자기관련적 평정 과제 - 이 한번씩만 주어지도록 구성하였다. 각 목록에서 6번의 시행을 한 구획으로 하여 각 구획마다 사회적 위협 단어가 3개, 비위협 단어가 3개씩 들어 가며, 의미적, 사적 자기관련적, 및 공적 자기관련적 평정 과제가 2 번씩 들어가도록 구성하였다. 구획내에서 단어와 단서 질문의 순서는 무선적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의미적 과제의 경우에 ‘그렇다’와 ‘아니다’가 50%씩 나오도록 조정하였다. 사적 자기관련 과제와 공적 자기관련 과제에서는 ‘그렇다’와 ‘아니다’의 비율을 사전에 조정할 수 없었다. 각 목록의 앞과 뒤에 3개씩 6개의 단어가 완충단어(buffer word)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각 목록은 42개의 시행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3벌의 목록들은 각 피험자 집단에 상쇄되어서 제시되었다.

실험절차

피험자들은 개별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자는 피험자에게 인상형성 실험이라고 알려준 다음에

단어들에 대한 평정 과제를 시켰다. 먼저 피험자에게 의미적 평정 과제(XXXX와 비슷한 뜻입니까?), 사적 자기관련적 평정 과제(당신 자신이 보는 당신을 나타 냅니까?), 및 공적 자기관련적 평정 과제(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당신을 나타냅니까?)를 설명하였다. 목표 단어와 단서 질문은 녹음기를 통해 제시되었는데, 시행 번호와 단서 질문은 남자 목소리로 제시되었으며, 목표 단어는 여자 목소리로 제시되었다. 단서 질문과 목표 단어를 합한 한 시행은 7초에 한번씩 제시되었다. 단서 질문이 3초간 제시된 다음에 목표 단어가 제시되었다. 피험자는 단서 질문과 목표 단어를 듣고 나서 응답지에 ‘그렇다’와 ‘아니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험자들은 먼저 6개의 단어들에 대해 연습시행을 하였다. 그 다음에 18개의 위협 단어들과 18개의 비위협 단어들로 구성된 목록(완충 단어를 포함하여 42개의 단어들로 구성됨)에 대해 평정 과제를 시행하였다. 평정 과제가 끝난 후에 피험자들에게 3분간 목표 단어들에 대해 순서에 관계없이 가능한 많이 회상하도록 하는 우연회상 과제를 시켰다. 나중에 회상된 단어수를 계산할 때, 단어 목록의 앞 뒤에 제시되었던 6개의 완충단어들은 제외되었다. 그리고 피험자들의 상태불안을 알아보기 위해서, STAI-상태 척도를 실시하였다. 끝으로 실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준 다음에 실험 절차를 마쳤다.

실험설계

실험은 2(대인불안, 비대인불안 집단)×2(사회적 위협, 비위협 단어)×3(의미적, 사적 자기관련적, 공적 자기관련적 과제)의 혼합요인설계로서, 첫번째 변인은 피험자간 변인이며, 뒤의 두 변인은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결 과

상태불안 점수

대인불안 집단과 비대인불안 집단의 상태불안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집단별 상태불안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평균	표준편차
대인불안 집단	45.83	9.80
비대인불안 집단	43.00	6.02

표 1에서 대인불안 집단과 비대인불안 집단 사이에 상태불안 점수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1, 34) = 1.09, p > .10$. 이 결과는 사회적-평가적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대인불안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상태불안을 더 높게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어들에 대한 회상에서 인지적 결손을 보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단어 내용에 따른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 68) = 6.42, p < .05$. 이 결과는 피험자들이 전반적으로 위협 단어에 비해서 비위협 단어를 더 많이 회상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이런 결과는 비대인불안 집단에만 한정되며, 대인불안 집단에서는 위협 단어와 비위협 단어에 따른 회상량의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집단과 단어 내용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F(1, 68) = 6.42, p < .05$. 이 상호작용에 대해 단순 주효과를 분석해 보니, 대인불안 집단에서는 위협 단어와 비위협 단어 사이에 회상량의 차이가 없었다, $F(1, 68) = 0.00$. 반면에, 비대인불안 집단에서는 위협 단어에 비해서 비위협 단어를 더 많이 회상하였다, $F(1, 68) = 4.16, p < .05$.

한편, 평정 과제 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 68) = 27.73, p < .001$. 이 결과에 대해 의미적, 사적 자기관련적 및 공적 자기관련적 평

표 2. 집단별 회상된 단어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

단어내용	위협 단어			비위협 단어		
	의미적	사적 자기	공적 자기	의미적	사적 자기	공적 자기
대인불안 집단	.28 (.46)	1.50 (1.04)	1.17 (.92)	.39 (.50)	1.50 (.86)	1.06 (.87)
비대인불안 집단	.39 (.50)	1.06 (1.06)	.72 (.67)	.89 (.58)	1.89 (.96)	1.06 (.79)

()은 표준편차.

회상된 단어수

단어 내용과 평정 과제별로 대인불안 집단과 비대인불안 집단의 회상된 단어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예언을 검증하기 위해서 집단, 단어 내용 및 평정 과제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대인불안 집단과 비대인불안 집단 사이에는 회상된 단어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1, 34) = .04$. 이 결과는 대인불안 집단이 비대인불안 집단에 비해서 전체 단

정 과제 사이에 Tukey 검증 방법에 의해서 평균들간의 쌍 비교를 하였다. 그 결과, 의미적 평정 과제에 비해서 사적 자기관련적 평정과제로 수행한 단어들과 공적 자기관련적 평정 과제로 수행한 단어들을 더 많이 회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차례대로 $p < .01, p < .05$). 즉 의미적 평정 과제에 비해서 두 자기관련적 평정 과제로 수행한 단어들을 더 많이 회상하였다. 또한, 두 자기관련적 평정 과제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5$). 즉 공적 자기관련적 평정 과제에 비해서 사적 자기관련적 평정 과제로 수

행한 단어들을 더 많이 회상하였다.

집단과 평정 과제의 상호작용, 단어 내용과 평정 과제의 상호작용, 그리고 집단, 단어 내용 및 평정 과제의 상호작용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대인불안 집단이 공적 자기관련적 과제로 수행한 사회적 위협 단어들을 가장 많이 회상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험 2

실험 2에서는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 비해서,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대인불안 집단의 정보처리적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았다. 실험 1의 결과는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대인불안 집단이 사회적 위협 단서에 촉진적인 정보처리적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대인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사회적 위협 정보에 과민한 자기도식이 활성화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대인불안집단의 자기도식이 활성화되어서 공적 자기관련적 처리 조건에서 사회적 위협 정보에 촉진적인 정보처리를 할 것이라고 예언된다.

방법

피험자

서울 소재 여자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과목을 수강하는 250여 명의 여자대학생에게 대인관계 불안 척도를 실시하여, 상위 25%(IAS 점수 50 이상)에 속한 학생들 중에서 표집된 대인불안이 높은 집단(대인불안 집단) 24명, 하위 25%(IAS 점수 37 이하)에 속한 학생들 중에서 표집된 대인불안이 낮은 집단(비대인불안 집단) 24명으로 총 48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4명의 피험자들(대인불안이 높은 피험자 2명, 대인불안이 낮은 피험자 2명)이 1조가 되어 실험에 참여하

게 되는데, 각 조의 4명은 이전에 서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로 구성되게 하기 위해서 학과와 학년이 다른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대인불안 집단의 IAS 점수의 평균은 56.33(표준편차 4.03)이었으며, 비대인불안 집단의 IAS 점수의 평균은 29.88(표준편차 3.83)이었다.

측정도구

실험 1에서와 같이, 대인관계 불안 척도와 STAI의 상태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극재료

실험 1에서 사용한 자극재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절차

피험자들은 4명이 1조가 되어 실험에 참여하였다. 4명의 피험자들 중에서 서로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그 조는 실험을 수행하지 않았다. 단어들에 대한 평가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를 조작하였다.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를 조작하기 위해서, 피험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른 피험자에 대한 인상을 평가하는 것이 실험의 주요 과정이라고 피험자들에게 알려 주었다. 즉 피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이 실험은 개인의 인상 형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실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 부분에서는 사람을 기술하는 단어들에 대한 평가 과제를 수행하고, 뒷부분에서는 개인적 정보와 그 정보를 전달하는 행동이 인상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 볼 것입니다.

뒷부분에서 시행할 인상 형성 실험에서 여러분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신상 정보, 즉 이름, 전공, 취미, 관심사항, 및 자신의 장단점 등을 2-3분 가량 말하게 됩니다. 이어서 여러분은 그때 가서 알려주어 어떤 주제에 대해 12-13분 가량 토론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각각에 대하여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소개와 토론 과정에서 말한 내용과 말하는 방식을 토대로 3 가지 인상 평가 차원, 즉 태도, 지적 능력, 및 호감도에 대해서 평가할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좀더 자세히 부가적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지시 후에, 실험 1과 같은 단어 평가 과제와 자유회상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피험자들의 상태불안을 알아보기 위해서, STAI-상태 척도를 실시하였다. 처음에 피험자들에게 알려준 인상에 대한 평가 실험 부분이 실제 실험에서는 수행되지 않았다. 끝으로 실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준 다음에 실험 절차를 마쳤다.

실험설계

실험 2도 실험 1과 마찬가지로, 2(대인불안, 비대인불안 집단)×2(사회적 위협, 비위협 단어)×3(의미적, 사적 자기관련적, 공적 자기관련적 과제)의 혼합 요인설계이었다.

결 과

상태불안 점수

대인불안 집단과 비대인불안 집단의 상태불안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집단별 상태불안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평균	표준편차
대인불안 집단	51.13	8.80
비대인불안 집단	42.68	5.32

표 3에서 대인불안 집단과 비대인불안 집단 사이에 상태불안 점수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1, 46) = 15.91, p < .01$. 이 결과는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인불안이 높은 사람이 그

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대인불안을 더 높게 경험한다는 것으로서, 본 실험에서의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 조작이 성공적이었음을 나타낸다.

회상된 단어수

단어 내용과 평정 과제별로 대인불안 집단과 비대인불안 집단의 회상된 단어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4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예언을 검증하기 위해서 집단, 단어 내용 및 평정 과제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대인불안 집단과 비대인불안 집단 사이에는 회상된 단어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1, 46) = 1.22$. 이 결과는 대인불안 집단이 비대인불안 집단에 비해서 전체 단어들에 대한 회상에서 인지적 결손을 보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단어 내용에 따른 주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 92) = 5.01, p < .05$. 이 결과는 피험자들이 전반적으로 위협 단어에 비해서 비위협 단어를 더 많이 회상하였음을 나타낸다. 표4를 살펴보면, 비대인불안 집단은 위협 단어에 비해 비위협 단어를 더 많이 회상하고, 대인불안 집단은 위협 단어와 비위협 단어에 따른 회상량의 차이가 없는 경향을 보이지만, 집단과 단어 내용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고 경향성만 보였다, $F(1, 68) = 2.86, p < .10$.

한편, 평정 과제 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 92) = 18.86, p < .001$. 이 결과에 대해서 의미적, 사적 자기관련적 및 공적 자기관련적 평정 과제 사이에 Tukey 검증 방법에 의해서 평균들 간의 쌍 비교를 하여 보았다. 그 결과, 의미적 평정 과제에 비해서 사적 자기관련적 평정과제 과제로 수행한 단어들과 공적 자기관련적 평정 과제로 수행한 단어들을 더 많이 회상하였다(차레대로 $p < .05, p < .01$). 즉 의미적 평정 과제에 비해서 두 자기관련적 평정 과제로 수행한 단어들을 더 많이 회상하였다. 두 자기관련적 평정 과제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집단과 평정 과제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표 4. 집단별 회상된 단어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

단어내용	위협 단어			비위협 단어		
	의미적	사적 자기	공적 자기	의미적	사적 자기	공적 자기
대인불안 집단	.58 (.65)	1.04 (1.04)	1.60 (1.06)	.75 (1.03)	1.00 (.83)	1.68 (.97)
비대인불안 집단	.37 (.58)	1.09 (.98)	.92 (.83)	.75 (.79)	1.53 (1.08)	1.17 (.87)

()은 표준편차.

유의미하였다, $F(2, 68) = 3.26, p < .05$. 대인불안 집단과 비대인불안 집단으로 나누어 평정과제 사이에 Tukey 검정 방법에 의해서 평균들간의 쌍 비교를 하였다. 그 결과, 비대인불안 집단에서는 두 자기관련적 처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인불안 집단에서는 사적 자기관련적 과제로 수행한 단어들에 비해서 공적 자기관련적 과제로 수행한 단어들을 더 많이 회상하였다($p < .05$).

단어 내용과 평정과제의 상호작용, 그리고 집단, 단어 내용 및 평정 과제의 상호작용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언과는 달리, 대인불안 집단이 공적 자기관련적 과제로 수행한 사회적 위협 단어들을 가장 많이 회상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논 의

본 연구는 대인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되는 자기도식에 의해 정보처리하는가를 알아 보려는 것이었다. Beck의 인지적 모형에 의하면, 대인불안 집단은 사회적 위협 정보에 취약한 자기도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위협 자극들의 처리가 촉진될 것이라고 가정된다. 그리고 대인불안 집단은 공적 자기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특성을 가지므로, 대인불안 집단은 공적 자기관련적 처리과정에서 사회적 위협 단어들을 가장 많이 회상할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실험 1은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가 없는 상

황에서 대인불안 집단의 지속적인 정보처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즉 공적 자기에 선택되고 사회적 위협 단서에 취약한 대인불안 집단의 정보처리적 특성이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나타나는가를 알아보았다. 실험 2는 대인불안 집단의 자기도식이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성화되어 실험 1의 스트레스 없는 상황과는 다르게 정보처리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먼저 상태불안 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 1에서는 대인불안 집단과 비대인불안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대인불안이 높은 사람이라도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대인불안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상태불안을 더 많이 느끼지 않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사회적-평가적 상황인 실험 2에서는 대인불안 집단이 비대인불안 집단에 비해서 상태불안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대인불안은 사회적-평가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이므로, 이런 결과는 예언될 수 있었다. Smith 등(1983)의 연구에서도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대인불안 집단의 상태불안 점수가 비대인불안 집단에 비해서 더 높았으나, 비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Smith 등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는 개인이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상태 불안은 특질 대인불안과 상황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될 것임을 시사한다.

대인불안 집단의 정보처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처리의 깊이 파라다임을 활용한 연구 결과, 실험 1과 실험 2에서 모두 의미적 처리 조건에 비하여 두

자기관련적 처리 조건에서 단어들을 더 많이 회상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 가지 처리 과제는 처리의 깊이 파라다임에서 보면 모두 의미적 처리 수준에 속한다. Rogers, Kuiper 및 Kirker(1977)의 선구적 연구 이래로, 처리의 깊이 파라다임을 응용한 선행연구들에서 의미적 처리에 비해서 자기관련적 처리 조건에서 더 많은 단어들이 회상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처리의 깊이 파라다임을 사용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그런데 두 자기관련적 처리를 비교할 때,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가 서로 달랐다. 실험 1에서는 공적 자기관련적 처리에 비해서 사적 자기관련적 처리 조건에서 단어들을 더 많이 회상하였다. 이 양상은 대인불안 집단과 비대인불안 집단에서 동일하였다. 대인불안 집단이 다른 처리 조건에 비해 공적 자기관련적 처리 조건에서 단어들을 더 많이 회상하지 않은 결과는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대인불안 집단이 공적 자기에 주의가 선회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실험 1의 결과는 공적 자기에 주의가 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두 집단 모두 공적 자기관련적 처리에 비해서 사적 자기관련적 처리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험 1의 이 결과는 Smith 등(1983)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Smith 등의 연구에서는 대인불안 집단은 비스트레스 조건에서 공적 자기관련적 조건에 비해 사적 자기관련적 처리가 더 우월함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와 Smith 등의 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 실험 1의 실험 상황과 Smith 등(1983)의 비스트레스 상황이 서로 달랐기 때문일 수 있다. Smith 등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이 약 16명씩 집단적으로 실험에 참여한 반면에, 실험 1에서는 피험자들이 1명씩 실험에 참여하였다. Smith 등의 비스트레스 조건이 사회적-평가적 위협이 최소화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과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인불안 집단은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를 어느정도 경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적 자기의식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사적 자기관련적 조건과 공적 자기관

련적 조건 사이에 회상량의 차이가 축소되었을지도 모른다. 이 설명은 사람들이 대인불안을 느끼지 않을 때에는 대체로 공적 자기관련적 처리에 비해 사적 자기관련적으로 처리된 정보를 더 잘 회상한다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험 1과 Smith 등(1983)의 연구 모두에서 비대인불안 집단은 비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른 처리 조건들에 비해 사적 자기관련적 조건에서 단어들을 더 많이 회상하였으며, 이런 결과들은 앞의 가정을 잠정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인불안 집단의 특성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인불안 집단은 대인관계 불안 척도(김남재, 1995; Leary, 1983)만을 실시하여 점수가 상위 25%에 속한 대학생들이었다. 대인불안을 평가하는 여러 도구들을 함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향적 대인불안이 충분히 높은 사람들만 대인불안 집단에 선정되었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 우울을 공변하여 피험자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인불안 불안 집단이 대인불안 뿐만 아니라 우울수준도 함께 높았을지도 모른다. 선행연구들에서 대인불안은 우울과 정적으로 상관되었기 때문이다(Anderson & Harvey, 1988; Jones, Briggs, & Smith, 1986). 우울 집단은 자기초점적 주의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Ingram, 1990). 본 연구에서 대인불안 불안 집단이 우울수준도 함께 높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높은 우울로 인해 자기초점적 주의를 많이 하게 되어 사적 자기관련적 처리 조건에서 회상을 더 많이 하도록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사회적-평가적 상황인 실험 2에서 대인불안 집단은 사적 자기관련적 조건에 비해서 공적 자기관련적 조건에서 단어들을 더 많이 회상하였다. 이 결과는 Smith 등(198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인불안 집단은 공적 자기에 주의가 선회된 정보처리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험 1과 실험 2에서 모두 전체 단어들에 대한 회상량에서 대인불안 집단과 비대인불안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는 대인불안 집단이 비대인불안 집단에 비해서 의미적 처리 수준으로 처리

한 단어들의 회상에서 인지적 결손을 보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보다는 제시되는 재료의 내용에 따라서 대인불안 집단과 비대인불안 집단 사이에 다른 특성을 보였다. 실험 1과 실험 2에서 모두 위협 단어들에 비해서 비위협 단어들이 더 많이 회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과 단어 내용의 상호작용이 실험 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실험 2에서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 상호작용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 대인불안 집단에서는 사회적 위협 단어들과 비위협 단어들의 회상량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비대인불안 집단에서는 사회적 위협 단어들에 비해서 비위협 단어들을 더 많이 회상하였다. 부적응적 정서에 대한 인지적 접근의 연구들에서 우울 집단이나 불안 집단에서는 부정적 내용의 정보처리가 촉진되며, 정상 집단에서는 긍정적 내용의 정보처리가 촉진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비대인불안 집단이 사회적 위협 단어들에 비해서 주로 긍정적 내용을 갖는 비위협 단어들을 더 많이 회상한 결과는 예상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실험 2의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대인불안 집단은 비위협 단어들에 비해서 사회적 위협 단어들을 더 많이 회상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Beck의 인지적 모형의 가설을 따라서 대인불안 집단은 사회적 위협 단어들의 처리를 촉진하는 정보처리를 할 것이며, 특히 공격 자기관련적 처리 조건에서 위협 단어들을 가장 많이 회상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예언과는 달리,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인불안 집단이 공격 자기관련적 처리 조건에서 비위협 단어들에 비해 위협 단어들을 더 많이 회상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예언과 다르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네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Beck의 인지적 모형의 가설과는 달리, 대인불안 집단이 사회적 위협 단서에 취약한 자기도식에 의해 정보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해석은 변형된 Stroop 과제를 사용한 Hope 등(1990)의 연구에서, 대인불안 집단이 사회적 위협 단서에 과민한 선택적 정보처리를 하였다는 결과를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

다.

둘째, 대인불안 집단이 사회적 위협 단서에 대한 선택적 정보처리가 기억과정이 포함된 처리의 깊이 파라다임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부적응적 정서에 대한 인지적 접근 연구들의 개관에서, Mathews와 MacLeod(1994)는 처리의 깊이 파라다임을 활용한 연구에서 우울 집단은 부정적 내용의 재료를 더 많이 회상하지만, 불안 집단에서는 그와 같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었다. Mathews와 MacLeod(1994)의 개관을 참조하여, Hope 등(1990)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대인불안 집단의 사회적 위협 단서에 취약한 정보처리적 특성이 선택적 부호화(encoding)로만 나타나고, 회상을 포함한 기억과정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집단 때문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대인불안 집단은 대인관계 불안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대학생들이었다. Hope 등(1990)은 임상적 대인공포 집단을 피험자로 하여 연구하였다. 대인관계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대학생들은 임상적 대인공포 집단과는 대인불안의 정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 위협 정보의 처리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Mathews와 MacLeod(1994)도 불안 연구에서 임상적 불안장애 집단에서 나타나는 선택적 정보처리가 불안 점수가 높은 대학생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자극재료로 사용한 사회적 위협 단어들이 대인불안 집단의 자기도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협 단어들을 선정하였는데, 이보다는 대인불안이 매우 높은 집단(임상적 대인공포 집단이면 더욱 좋을 것임)이 사회적 평가 상황에서 자신의 특성으로 평가받기를 두려워하는 단어를 사회적 위협 단어들로 선정했다면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본 연구는 대인불안 집단의 자기관련적 정보처리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 결과, 대인불안 집단이 사회적-평가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른 처리

조건에 비해서 공적 자기관련적 처리를 한 단어들을 가장 많이 회상하였으나, 비위협 단어들에 비해서 위협 단어들을 더 많이 회상하지는 않았다. 즉 처리의 깊이 파라다임을 사용한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모형에서 가정한 대인불안 집단의 사회적 위협 단서에 취약한 정보처리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임상적 대인공포 집단이 아닌 대인불안이 높은 일반인 집단에서는 사회적 위협 단서에 취약한 정보처리적 특성이 회상을 포함한 기억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대인불안 집단은 공적 자기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특성을 가지는 바, 이와 관련된 정보처리적 특성을 알아보는 연구에서 자기관련적 처리의 깊이 파라다임이 유용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개선하여 대인불안 집단을 좀더 엄격히 선정하고, 대인불안 집단의 자기도식을 잘 반영하는 사회적 위협 단어들을 자극재료로 사용하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일반 대인불안 집단 뿐 아니라, 임상적 대인공포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위협 단서에 취약한 자기관련적 정보처리 양상을 알아보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인불안 집단의 사회적 위협 단서에 취약한 정보처리적 특성이 선택적 부호화로만 나타나고, 회상이나 재인출 포함한 기억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가를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남재 (1995). 대인불안의 측정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 73-81.
- 김영채 (1984). 400개 성격특성기술 형용사의 심상가와 호오가. *사회과학논총*, 2, 17-32.
- 김정택, 신동균 (1978). STAI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1, 69-75.
- 한덕용 (1992). 성격특성 용어의 사용빈도, 호오도, 및 사회적 바람직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1, 147-171.
- Alden, L. E., Bieling, P. J., & Wallace, S. T. (1994). Perfectionism in an interpersonal context: A self-regulation analysis of dysphoric and social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8, 297-316.
- Anderson, C. A., & Harvey, R. J. (1988). Discriminating between problems in living: An examination of measure of depression, loneliness, shyness,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6, 482-491.
- Beck, A. T., & Emery, G.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Clark, J. V., & Arkowitz, H. (1975). Social anxiety and self-evaluation of interpersonal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s*, 36, 211-221.
- Curran, J. P. (1977). Skills training as an approach to the treatment of heterosexual- social anxiety. *Psychological Bulletin*, 89, 140-157.
- Doefler, L. A., & Aron, J. (1995). Relationship of goal setting, self-efficacy, and self-evaluation in dysphoric and socially anxious wome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725-738.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1975). Public and private self 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 Hope, D., & Heimberg, R. (1988).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phobia.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626-639.
- Hope, D. A., Rapee, R. W., Heimberg, R. G., & Domback, M. J. (1990). Representation of the self in social phobia: Vulnerability to social threa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177-189.
- Ingram, R. E. (1990). Self-focused attention in clinical psychology: Review and a conceptual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 156-176.

- Ingram, R. E., Kendall, P. C., Smith, T. W., Donnell, C., & Ronan, K. (1987). Cognitive specificity in emotion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734-742.
- Johnson, R. L., & Glass, C. R. (1989). Heterosocial anxiety and direction of attention in high school boy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3*, 509-526.
- Jones, W. H., Briggs, S. R., & Smith, T. G. (1986). Shynes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629-639.
- Leary, M. R. (1983). Social anxiousness: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7*, 66-75.
- Leary, M. R., & Kowalski, R. M. (1995). *Social anxiety*. New York: Guilford Press.
- Leary, M. R., & Kowalski, R. M., & Campbell, C. D. (1988). Self-presentational concerns and social anxiety: The role of generalized impression expectanc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2*, 308-321.
- Maddux, J. E., Norton, L. W., & Leary, M. R. (1988). Cognitive components of social anxiety : An investigation of the integration of self-presentation theory and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6*, 180-190.
- Mathews, A., & MacLeod, C. (1994). Cognitive approaches to emotion and emotional disorder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5*, 25-50.
- Monfries, M. M., & Kafer, N. F. (1994).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The Journal of Psychology, 128*, 447-454.
- Nasby, W. (1989). Private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articulation of self-schem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17-123.
- Pilkonis, D. A., Feldman, M., Himmelhoch, J., & Cornes, C. (1980). Social anxiety and psychiatric diagnosi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8*, 13-18.
- Rogers, T. B., Kuiper, N. A., & Kirker, W. S. (1977). Self-reference and the encoding of personal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77-688.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and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 641-668.
- Smith, T. W., Ingram, R. E., & Brehm, S. S. (1983). Social anxiety, anxious self-preoccupation, and recall of self-relevant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276-1283.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Wallace, S. T., & Alden, L. E. (1995). Social anxiety and standard setting following social success and failu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613-631.

Recall of Self-Relevant Information in Socially Anxious Individuals

Kim, Nam Jae

Department of Psych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self-relevant information processing characteristics of socially anxious individuals in no stress condition(experiment 1) and social-evaluative stress condition(experiment 2). A modified self-referent depth-of-processing paradigm was employed. Stimulus adjectives were classified into social threat words and non-threat words. In experiment 1, socially anxious students showed greater recall of words in private self-referent condition than any other conditions. In experiment 2, socially anxious students showed greater recall of words in public self-referent condition than any other conditions. Inconsistently with the prediction in experiment 2, socially anxious students did not show greater recall of social threat words in public self-referent condition than any other conditions. Additionally, some implications of present results and methodological issues were discussed.